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주택공간위원회 서준오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4선거구 서준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난 8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의 업무 과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급식 안전과 건강, 성장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

(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단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얼마 전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학교급식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바, 영양(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교육부에서 나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하루 빨리 「학교급식법」이 개정되길 바라며 본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